



김스아이엔씨의 다용도 청소기 '바스웰'

# 브러시 갖다대면 '쓱쓱' ... 힘 들이지 않고 욕실청소

화장실과 베란다. 다용도실 청소는 항상 남편인 김영주 김스아이엔씨 대표의 몫이었다. 좁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세정제를 뿌린 뒤 기다렸다가 오염된 부분을 수세미로 문질러야 했다. 변기와 개수구 등에서 나는 악취도 거슬렸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던 김 대표는 "목욕하면서 가볍게 청소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 9월 무선 및 방수 기능을 적용한 욕실 전용 청소기 '바스웰'을 내놨다.

◆강력한 방수 기능과 모터 바스웰은 물속에서도 오랜 시간 방수가 된다. 욕실청소기로는 최초로 완전방수로 분류되는 'IPx7' 등급을 인증받았다. 1m 수조에서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수력이다. 김 대표는 "보통 변기에 물을 집어넣어 닦는데 이 제품은 변기 물 속에 넣고 작동시켜 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힘도 좋다. 찌든 때를 제거하려면 강력한 회전력이 필요한데 자동차용 변속기에 들어가는 유성기어를 자체 개발해 탑재했다. 그는 "모터의 회전 수가 170RPM(분당 회전수)인데 너무 빨리 돌면 물이 사방으로 튀고 너무 적게 돌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았다"며 "기어를 작고 파워 있

게 개발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6개의 톱니바퀴와 베어링 등이 맞물리며 움직여 힘을 낸다. 한 번 충전하면 2시간30분가량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청소기답게 작고 슬림하게 설계했다. 무게는 730g으로 여성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볍다. 노트북용 힌지를 사용해 각도 조절이 자유롭다. 청소 부위에 따라 핸들 각도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용도에 따라 브러시를 교

탁월한 방수기능으로 변기 속에서 작동해도 '커튼'

브러시만 바꾸면 다용도 활용 가벼워 1인가구·고령층 인기

체할 수 있도록 수세미, 걸레, 스펀지, 바닥브러시 등 다양한 종류의 브러시가 있다. 연장 파이프를 연결하면 걸이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뿐 아니라 베란다와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해 청소해야 하는 곳에 적합하다.

◆소비자 반응 좋아 '입소문' 종합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년 초 하이마트와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양판점에서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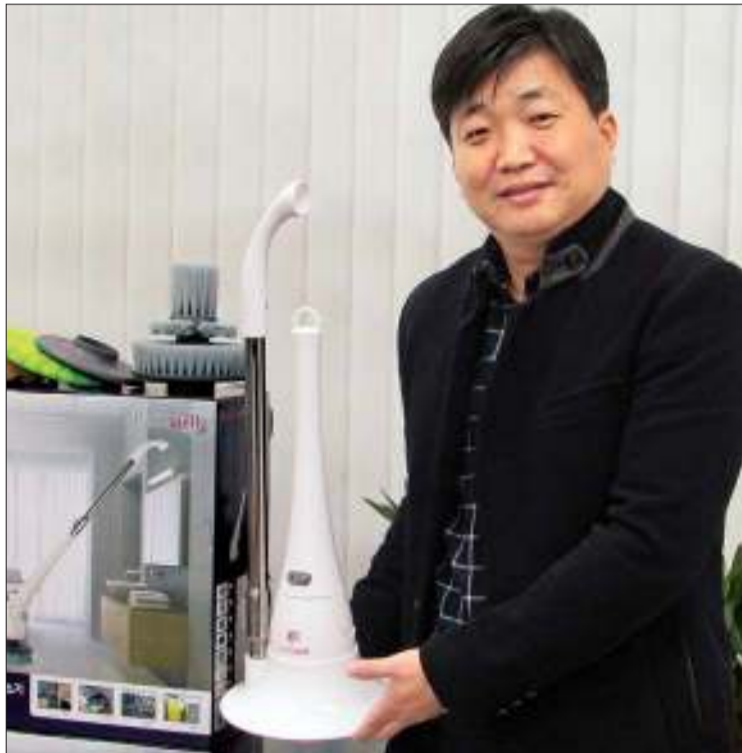
내년 3월엔 홈쇼핑 판매방송도 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욕실 청소를 주로 남자가 하다가 보니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청소대행업체들도 신기해하면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김스아이엔씨는 정보기술(IT) 제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 대표가 독립해서 2007년 설립한 회사다.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어학기 등 주로 휴대용 IT기기를 만든다.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R&D)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 내년 매출 목표는 약 80억원이다.

욕실용 청소기를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동명의 자체 상표 '바스웰'도 같이 선보였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광고·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능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보완한 후속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자체 상표를 선보인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며 "삼성 LG 등 대기업이 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겨냥해 IT를 접목한 다양한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글로벌 청소기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김영주 김스아이엔씨 대표가 다용도 무선 방수 욕실청소기 '바스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even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김스아이엔씨-'바스웰' 다용도무선방수욕실청소기 (031)457-3107 △루미르-쉴볼로 작동하는 LED램프 (02)6959-8224 △헤즈테크놀로지-주사바늘 자동제거 분리배출기 (042)487-7962 △지앤아이솔루션-썬 월드 에어 (02)2624-3025

# “지금의 위기는 동시다발적 우량 中 小 企 살릴 지원책 시급”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무차별 자금 회수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61·사진)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잇단 자금 회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송 부회장은 이어 “국내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내수 부진, 정치적인 혼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앞으로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금융회사의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과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 등이 겹칠 경우 건전한 중소기업까지도 기동능 상태에 몰릴 수 있다고 우



려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부터 ‘고액·장기 신용보증거래제’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 자칫 중견기업으로 위기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독일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며 “국내 금융회사도 이런 전략을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울 때 우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산을 더 빌려주고 호황이 닥치면 과실을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와 같은 상환 능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인의 신용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대웅제약, 中 선양대와 공동연구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왼쪽)이 청마오성 중국 선양약과대학 부총장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웅제약 제공

## 한솔그룹 '3세 경영' 속도 낸다

조성민 씨 홀딩스 지분매입 한솔그룹이 3세 경영수업에 나섰다. 한솔그룹은 조동길 회장과 조회장의 외아들인 성민씨(28·사진)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각각 한솔홀딩스 주식 15만3078주(지

분 0.33%)와 27만800주(0.58%)를 장내 매입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에도 51만9000주를 취득했다.

1988년생인 성민씨는 2014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산운용사 키니코스 어소시에

이즈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현재 미혼이며 지난 9월부터는 한솔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업계에서는 성민씨가 최근 지분을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기증받은 제대혈 멋대로 쓴 차병원

현장에서 이지현 기자 바이오헬스부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예산 5억1800만원 중 상당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도 의뢰해 제대혈 연구 중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대혈법에 따라 기증 제대혈 중 세포 수가 모자라는 부적격 제대혈만 연구에 쓸 수 있다. 가족

미용·노화방지 목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법 시술

제대혈을 연구에 사용하거나 세포 수가 많은 적격 제대혈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차병원은 이 같은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회장 일가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연구윤리를 저버렸다.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인 의사 강모씨는 제대혈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항노화 연구를 하며 차 회장 부부 등에게 아홉 차례 제대혈 주사를 놓았다.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대혈 주사를 무단으로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음의 운영 방식도 철저히 맞았다. 복지부는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항목기간 제한 없이 차병원그룹 의료기관 등에서 할 인반도록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차병원그룹과 차음의원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차 회장 일가가 난치질환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써야 할 제대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욕심이 환자들의 꿈마저 꺾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bluesky@hankyung.com

magazine.hankyung.com No. 1168 | 2016. 12. 26 - 2017. 1. 1

# 한경 BUSINESS

비즈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주간지  
송년호 값 4,000원

한국경제신문

COVER STORY

## 2016 올해의 CEO 16인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경쟁을 이어 왔다. 그 어느 때보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한 해였다. 한경비즈니스는 유독 힘을 얻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CEO들을 선정했다. 취재팀장 기자들이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리더십·경영실적·윤리·의식 등을 세밀하게 전수조사했다. 세 차례의 심사회의를 거쳐 '2016 올해의 CEO' 16인을 최종 선정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광우 우리은행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회장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장재열 신세계 사장  
박근태 CJ대한통문 대표  
임병용 GS건설 사장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  
이해진 네이비 어사회 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SPECIAL REPORT I

INDUSTRY

비즈니스 포커스

매일유업, 4년째 '남양' 제치고 질주

트렌드

'임표중'이 영드는 공연 티켓

분양 현장

동탄 호수공원 품은 '글로벌올림픽레이크2차' 분양

2016 베스트셀링카 1위는 누구?

MONEY

은행 인사이트

인터넷 전문은행 집단 사이 "은행의 반격"

부동산 인사이트

'권혁우 vs 유주현' 건협 차기 회장론

머니 인사이트

트럼프 시대, '달러·금리'에 투자하라

TECHNOLOGY

잘못된 콘텐츠 비즈니스 이야기⑧

뉴미디어 시대 콘텐츠 원천 '일본'

테크 트렌드

스마트 홈 시대는 어떻게 열리나?

SPECIAL REPORT II

'ISA vs 비과세 해외 펀드' 승자는?

MANAGEMENT

경영전략 트렌드

'코카콜라'와 '펄스콜라'의 차이는 뭘까

신원환의 커리어 업그레이드

생각 없는 차별화는 필요가 없다

김경집의 인문학 속으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릴까

광고문의: 02-360-4835 구독문의: 02-360-4841 ※대형 서점·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